

반려견에게 목욕이 트라우마가 되지 않게 하려면

주인이 수건을 들고 목욕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고 반려견은 집의 가장 으스스한 구석으로 몸을 숨긴다.

날이 갈수록 반려견은 더 겁먹은 행동을 보이고, 주인은 반려견에게 트라우마를 안겨주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된다.

◆반려견을 숙여라!

나쁘게 들릴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목욕 준비를 하고 나서 반려견을 욕실로 데려가려고 찾을 때면 반려견은 이미 도망가고 있다. 그러므로 감쪽 같이 숙이는 편이 더 좋을 것이다. 집 안에 다른 사람이 있다면,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에 다녀오라고 하고 그동안 목욕 준비를 마치는 방법이 있다.

반려견이 그 모습을 보지 못하므로 무얼 준비하는지 알지 못할 것이다. 반려견이 집에 돌아오면 당신이 보고 싶어 어찌할 줄 모를 것이다. 그 순간을 이용해 반려견을 품에 안고 천천히 욕실로 향한다.

◆반려견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자!

당연한 소리처럼 들리겠지만, 우선 욕실에 들어오고 나면 문을 닫는 일을 잊지 않도록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반려견은 틀이 나면 바로 도망갈 데고 종일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이다.

◆말을 걸거나 노래를 해 준다.

반려견을 진정시키기 가장 좋은 방법은 부드럽게 말을 걸고 아무 일도 없다고, 내가 여기 있다고,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것이다.

또 노래를 해줄 수도 있다. 노래가 반려견의 기분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좋은 작용을 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목욕시키기

미리 물의 온도를 맞추어 놓는다. 욕조에 반려견이 있는 상태에서 물을 틀면 물이 너무 차갑거나 뜨거워서 놀랄 수 있기 때문이다. 몸을 약간씩 적시는 것부터 시작한다. 발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위로 올라가는 동안 손으로 쓰다듬어주면 긴장을 풀 것이다. 샴푸를 할 때는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마사지를 해주면 진정할 것이다. 목적은 목욕이 반려견에게 트라우마적인 경험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임을 기억하자.

◆말리기

말리기는 개가 극도로 싫어하는 행위다. 가장 좋은 것은 수건으로 머리부터 시작해서 부드럽게 말려주는 것이다. 머리부터 허리, 등, 발까지 말려준다. 너무 세게 압박하지 않고 원을 그리며 말려준다. 헤어드라이어는 피하는 것이 좋다. 소음과 바람이 개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날이 좋다면 산책하러 나가 털을 말릴 수도 있다. 산책 후 집에 돌아와서는 빗질을 하고 개 향수를 약간 뿌려주어도 좋다. 그러나 개는 향수를 좋아하지 않을 수 있다. 향수를 손에 털어 쓰다듬듯 향수를 발라준다.

고양이는 왜 상자를 좋아할까?

고양이를 키워본 사람이라면 고양이를 위해 비싼 장난감 사 왔는데 들여왔는데, 장난감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장난감을 담아왔던 상자 안에 들어가 더 즐거워하던 모습을 목격한 적이 있을 것이다. 고양이는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고양이의 성격과 상자

고양이는 주변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가 크다. 따라서 새로운 것을 접하게 되거나, 그것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 그들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다.

고양이의 행동과 그들의 이상한 습관을 바탕으로 한 몇 가지 연구가 진행되었다. 연구 결과 대부분 고양이는 밀폐된 공간에서 더욱 편안함을 느낀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네덜란드 위트레흐트 대학교의 동물 행동학자 클라우디아 빈케는 보호소에서 고양이를 침착하게 할 방법을 알아내기 위한 연구를 하고 있었다. 빈케는 네덜란드의 한 운동가와 함께 고양이를 두 무리를 나눈 후, 한 무리



에게만 원하면 아무 때나 숨을 수 있는 상자를 주었다.

연구에 따르면, 상자를 받은 고양이 무리의 스트레스 수준은 다른 무리보다 낮았다. 상자가 있는 무리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더 적은 시간이 걸렸고, 보호사들과 더 나은 수준의 상호작용을 보여주었다.

◆고양이는 왜 상자를 좋아할까?

고양이가 상자를 좋아하는 이유는 자신을 세상에서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연구에 따른 또 다른 결론은 고양이들은 갈등에 잘 적응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고양이는 싫어하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도망가는 것을 더 선호한다. 따라서, 상자는 그들에게 상황을 좀 더 중립적인 위치에서 진정하고 분석할 수 있는 임시 피난처를 제공한다.

◆고양이의 체온 조절에 도움을 주는 상자

고양이의 체온은 사람의 체온보다 2도가량 높은 38도에서 39도 사이로 달라질 수 있다. 고양이는 시원하고 외딴곳을 좋아하는데, 욕조나 싱크대, 심지어 옷장에서도 고양이를 흔히 발견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때문이다.

상자는 고양이가 여름철에 체온을 조절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다. 더운 날에 더 잘 대처할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하자.

겨울철에는 정반대의 효과가 있다. 상자는 고양이들의 체온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 작은 공간은 그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함과 동시에 따뜻함을 유지하기 위해 공기 순환으로 웅크리게 만들기 때문이다.

“에버그린 프리스쿨입니다”

www.myevergreenschool.com

“아이들이 VISION을 꿈꾸는 학교”

5882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1

714.670.9687